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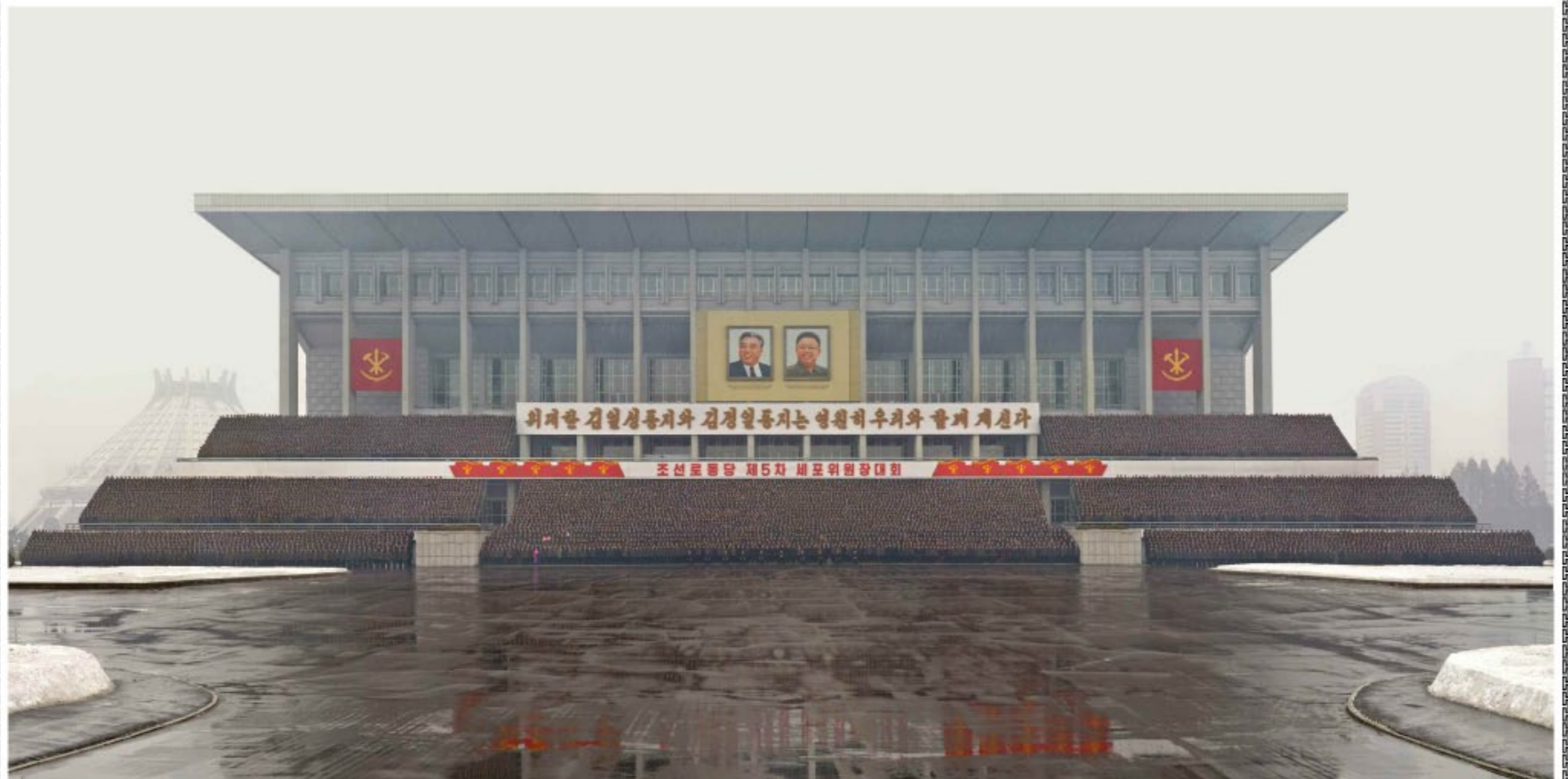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9호 [루게 제25868호] 주제 106 (2017)년 12월 25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12월 24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해동지, 박광호동지, 김평해동지, 태중수동지, 오수용동지, 안정수동지, 박태성동지, 최희동지, 박태덕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을 바탕으로 다져 나가는데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는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영광의 대회장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게 된 참가자들의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촬영장은 끝없이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하늘을 진작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며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바탕으로 강화하시어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이룩해나가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담배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발전기초조직인 당세포를 당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전위조직으로 존중시키고 대중의 앞장에서 당과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대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대회참가자들은 주제의 당건설사에 특기할 전당세포위원장들의 대회합에 몸소 참석하시어 당세포사업에서 뛰어뛰어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신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고 또 울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회 참가자들이 이번 대회에 기본정신을 높이 만들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전당의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당정책관철의 전위대로 더욱 든든히 꾸려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당으로 빛내이시며 당 제7차대회 결정판철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기수, 투쟁의 기수가 되어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비상히 높이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다.

본사기자도반

당 세포 강화의 진로를 밝혀준 강령적 지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하신 연설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관철의 전위대로 강화하자》에 대한 반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현시기 당세포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의자로, 우리 당의 진정된 동지,

전우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크나큰 격동속에 받아안은 전당의 당원들과

당세포위원장들은 우리 당의 당세포중시사상과 방침을 깊이 새기고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 당정책관철의 전위대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온 힘을 다 바쳐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당세포위원장은 우리 당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 관철과 혁명과업수행에 조직 동원하는데서 당세포위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세포에서는 사업의 중심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 관철과 혁명과업수행에 조직 동원하는 데서 당세포위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세포는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의자로 키우는 기본거점이다. 당세포는 사상사업의 여러 공성과 계기들을 통하여 위대성교양,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신념교양, 애국주의의 교양을 당원들의 준비정도와 현실적요구에 맞게 신속하게 넓혀 나가겠다. 또한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 당원

들과 노동자들이 투철한 주체관을 지니고 제국주의와 계급적위력을

과감히 투쟁하여 적들의 결전의 시각이 오면 사망하는 조국을

당 세포들의 전투력을 높여

김일성 신계군 백곡농장 제2작업반 당세포위원장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 관철과 혁명과업수행에 조직 동원하는 데서 당세포위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세포에서는 사업의 중심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 관철과 혁명과업수행에 조직 동원하는 데서 당세포위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세포에서는 사업의 중심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 관철과 혁명과업수행에 조직 동원하는 데서 당세포위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대중적응능력의 발휘하고 집단적신심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였다.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들의 생활속에 더 깊이 들어가 그들의 마음속고통과 생활상애로를 제때 풀어주며 가정방문도 자주 하면서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일국중산후생에서 누구나 다 혁신자,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였다.

《명철로만 창천천리산 사업소 초급당원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연설을 받아안고보니 격동된 심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도로하였다.

남로 강대해지는 우리 국가의 위력에 걸맞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적대세력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가르막아보려고 반공화국제압살력중에 광복하고있다. 하지만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는 강령적지침이 있기에

보우며 한사람같이 용감히 떨쳐 나세도록 준비시키겠다.

초급당원회의에서는 세포위원장들이 혁명과업수행과정을 통하여 정치실무수준과 실천능력을 부단히 높여나가도록 하였다.

조선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결성의 신심과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간직하고 지역생활,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과감히 헤쳐나가도록 사상전을 더욱 진용적으로 벌여주었다.

당세포위원장이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자직하면서 최선선진선봉봉선을 드세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성발달을 고조시키도록 함으로써 통나무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겠다.

한평호 정성군당위원회 부위원장들은 당세포를 중시하는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당세포들의 사업을 더욱 신속있게 도와주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

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군당위원회는 당세포들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로배강악하고 당세포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군당일군들이 당세포들에 자주 내려가 당정책관철과 당세포총회에도 참가하여 실정을 포괄하고 당세포위원장이 당원들에 대한 당정책관철과 지도를 견할없이 바로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확고한 기풍을 세워나가겠다. 대오의 앞장에서 높은 헌신성을 발휘하며 한가정의 어머니처럼 당원들의 마음의 사업을 잘하는 당세포위원장을 내세워주고 평가도 해주어 그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나가도록 하였다.

장성현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당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연설에 제시된 과업을 결사관철해 나갈 의지를 이렇게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에서 당세포위원장의 수준과 능력이 당세포

사업성과라고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세포위원장의 날을 신속있게 운영하며 강승과 당직상학, 경험토론회를 자주 조직하여 세포위원장이 발전하는 현실에 뒤떨어지지 않게 수준을 높이고 실천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였다. 당책임일군들부터 당세포에 늘 내려가 세포위원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 올리는 보훈을 알고 그 지시대를 손에 쥐도록 배워주고 이끌어주었다.

당세포위원장의 사업과정에 전향이 나타나면 제때에 바로잡아주어 그들이 당정책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경험을 쌓고 교훈도 쌓으면서 일을 잘해나가도록 사업을 짜고들었다. 당세포위원장이 당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위단위, 제1선함로를 책임진 승조한 사명관 분분을 잊지 않도록 부단히 각성시키겠다. 그리하여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판철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편향기업소의 모든 당세포들이 결사대, 혁명대의 영예를 떨치도록 하였다.

본사기자